기획특집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추진성과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7대자연경관 추진팀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 끝에 당당히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은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세계시민 한 분 한분의 절실한 마음이 하나로 뭉쳐 이루어 낸 것이다. 이러한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을 잘 활용해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JEJU DEVELOPMENT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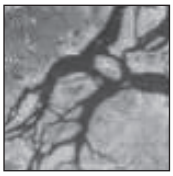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가 70억 세계인의 보물섬이 되었다.

제주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람사르습지 4관왕에 이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전 세계인이 주목할 천혜의 절경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제 제주도는 브라질 아마존, 베트남 하롱베이, 아르헨티나 이과수폭포,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 필리핀 지하강, 남아공 테이블 마운틴과 함께 세계인이 인정하는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이다.

제주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120만 내외 도민과 5천만 국민, 800만 해외동포, 70억 세계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낸 쾌거라 더욱 의미가 있다.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고, 일대 사건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제주로 인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이렇게 모두가 염원하던 제주의 세계7대 자연경관이기에 발표의 순간 제주 화산섬은 들썩였다.

12일 오전 4시 7분(GMT 11월 11일 저녁 7시 7분),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N7W재단 통지서를 보고 "대한민국 제주"를 발표하자, 선정발표 행사장인 제



브라질
Amazon
(아마존)

베트남
Halong Bay
(하롱베이)

아르헨티나
Iguasu Falls
(이구아수 폭포)

대한민국
Jeju Island
(제주도)

인도네시아
Komodo
(코모도)

필리핀
Puerto Princesa
Undergro und River
(지하강)

남아공
Table Mountain
(테이블산)

〈그림〉 세계7대자연경관

〈그림〉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발표 장면

주아트센터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도민들은 “제주도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선정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펼쳐지고 축포가 터지며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KBS, MBC, SBS 공중파 3사가 제주의 세계7대 자연경관 발표 장면을 생중계했고, YTN, MBN, MBC 플러스, KCTV 등 케이블 방송에도 방영이 됐다.

선정 축하·감사 이벤트도 이어져

선정에 따른 이벤트도 이어졌다.

산지천 일대에서는 축하 퍼레이드가 펼쳐졌고, 성산일출봉에서는 ‘7대경관 선정 기념 제주사랑 음악회’ 축하공연도 마련됐다.

선정 기념으로 도내 29개 공영관광지가 15억 입장료 손실을 감수하고 무료로 개방되기도 했다.

제주도의 선정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각 기업체들의 이벤트가 줄을 이었다. 제주항공에서는 3명이 예매하면 1명 티켓을 덤으로 주는 3+1 이벤트를, 패밀리마트에서는 선정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 777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최고 57% 할인행사에 1억5천3백만 상당의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신라호텔, 롯데호텔 등 도내 특급호텔에서도 항공권, 숙박권을 경품으로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용·

〈그림〉 주상절리 해무

숙박·목욕업소에서도 선정 기념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처럼 관광, 여행, 항공, 유통 관련 기업들의 7대 경관 선정 이벤트는 제주의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한편 7대 경관 선정 수혜자로서 감사의 표시였다.

대한민국 제주, 브랜드 가치 비약적 상승, 관광대국 도약 계기

제주의 7대 경관 선정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비약적인 증가로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도소매, 교통, 숙박업도 함께 발전할 것이다. 2차 제조업 비중이 낮은 제주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도외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수입하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최소 26.2%에서 최대 73.6%, 내국인 관광객도 8.5% 증가하고, 매년 최소 6,300억에서 최대 1조 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중형승용차 5만대를 수출했을 때와 같은 수치다. 영국의 그랜드 손튼 보고서에서도 남아공의 테이블 마운틴이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 연간 2억 달러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1만1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실제 12일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이 발표 되자 14일 월요일 증시에서 항공·호텔·카지노 등 여행 관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어떤 종목은 가격제한폭(자유투어 15%)까지 올랐고, 이것은 제주의 7대경관 선정으로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CNN, MSNBC, USA투데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인터네셔널 비즈니스타임즈, 영국 BBC,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 중국 신화통신,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대만, 이란 언론 등 몰디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해외언론에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소식이 보도되는 등 7대 경관 선정 효과가 가시화됐다.

최종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지 못한 이스라엘 관광부장관은 AF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순수 홍보비로만 238억원을 쓰고도 최종 7대 경관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수억명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해가 알려졌고 그들이 사해에 투표하도록 전개된 관광부 주도의 인상적인 캠페인에 감사한다"며 "캠페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사해의 이미지를 해외에 알릴 수 있었으므로 탈락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펀디만 관광청 테리 맥쿨로취는 "4년간에 걸친 7대 경관 선정 이

벤트는 세계 최대 조수간만의 차로 유명한 펀디만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히는 등 7대 경관 도전 과정에서의 홍보 효과를 강조했다.

제주 또한 제주방문 관광객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등 7대 경관 도전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873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5.3% 증가한 수치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104만으로 전년도 77만에 비해 무려 34.6% 급증하였다. 선례도 있다. 2007년 세계 신7대 불가사의에 선정된 페루 마추픽추는 관광객이 70%, 멕시코 마야유적은 무려 75%의 관광객이 증가하였다. 또한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도내 1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기업경제 파급효과' 조사에서도 86.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69.5%가 전년대비 매출 상승을 전망했다.

작년 12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 발표했는데 전망치가 77로 나타났다. 지역별 기업경기 역시 수도권 76으로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나온 반면, 제주도는 가장 높은 85로 집계되었다. 이는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에 따른 관광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경제적 효과 외에도 7대경관 선정으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대한민국 이미지가 개발 위주의 공업국가 이미지에서 친환경적 관광선진국 이미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7대경관 선정 발표 당시 자리를 함께하며

〈그림〉 한라정상에서 본 새해 첫 일출

"제주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국가브랜드 가치의 비약적 상승, 한국관광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막대한 선정효과가 있는 7대 경관을 제주가 이뤄낸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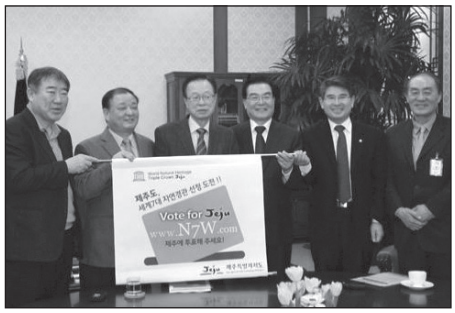
원동력은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뜨거운 지지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섬 전체가 하나의 후보지인 제주도는 28개 후보지 가운데 유일하게 섬, 화산, 폭포, 해변, 국립공원, 동굴, 숲 등 N7W재단의 7가지 선정테마를 다 갖춘 종합적인 자연 비경 자체가 경쟁력이 있긴 했지만, 뒤늦게 캠페인에 뛰어든 점, 적은 인구수, 낮은 인지도를 감안하면 선정을 장담할 수 없었다. 특히 다른 후보지들의 경우 정부, 국가원수 등이 직접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했다. 필리핀(푸에르토프린세사지하강)과 인도네시아(코모도 국립공원), 폴란드(마수리안 호수) 등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국민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이스라엘(사해)의 경우에는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지난 2년간 238억원의 홍보비를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사해를 홍보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스위스 비영리재단 뉴세븐원더스는 「우리의 유산은 우리의 미래」라는 모토아래 전 세계의 다양한 자연 경관을 홍보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 보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얻어진 수익을 다시 자연 보전에 환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세계7대 자연경관을 선정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7곳을 뽑기 위해 전 세계 네티즌이 추천한 44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1차 투표(2007년 7월 ~2008년 12월) 결과 제주도를 포함한 261곳이 1차 관문을 통과했고, 이후 인터넷 2차투표(2009년 1월~2009년 7월)와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09년 7월 21일 세계7대 자연경관 최종 후보지 28곳에 제주도가 포함되었다.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에 작년 12월 범국민추진위원회,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뒤늦게 투표참여 운동에 뛰어든 제주도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상당히 불리했다. 작년 말까지 하위그룹(15위~28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범국민위가 주관이 되어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 선포식'을 열어 불을 지피고, 이명박 대통령의 투표와 국회의 지지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세계7대자연경관을 국가적 아젠다로 지원하면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 이명박 대통령의 투표 장면〉



〈그림〉 국회 7대경관 지지결의안 채택

거기에 국내외 유명인사와 재외동포, 기업,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 열기가 이어지고, 언론의 협조를 통한 대대적 홍보가 이뤄지면서 전 국민의 투표 참여에 불을 당겼다.

홍보대사들의 활약도 컸다. 제주출신인 탤런트 고두심씨가 홍보대사단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탤런트 김태희, 채림, 박선영, 한재석, 가수 윤도현, 박재범, 남진, JYJ, 재일음악가 양방언, 축구스타 박지성, 이충성, 프로골퍼 최경주, 양용은, 격투기 추성훈 등이 발벗고 나섰고, 미식축구선수 하인스워드,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클레지오, 전 중국탁구선수 자오즈민, 오페라가수 폴포츠, 팝페라 가수 로즈장, 마사이 신발 대표 칼뮐러, 오오하시 켄이치 일본 와카야마시장,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의장 이브라힘 꼬무, 기마티니 프랑스 박사, 미스 미얀마 등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사들까지 내외국인 100여명이 홍보대사로 나서면서 7대 경관 선정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동력은 제주도민과 국민의 뜨거운 지지다. 7대 경관을 위해 초등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른신들까지 전화와 문자·인터넷 투표로 한 표 한 표 동참해 주셨다. 한 초등학생은 8년간 모은 돼지저금통을 전화성금으로 기탁하고, 멀리 베트남에서 시집 온 며느리는 효행상으로 받은 상금을 기탁하였다.

인천에 사는 할아버지는 제주에 전우를 찾으러 왔다가 제주의 7대 경관 도전을 알고 2,000통 이상 투표자에게 제주여행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분들 외에도 서울 강남역 사거리, 명동 한복판 LED 전광판에 수억원 상당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해주셨던 분들까지 7대경관 선정을 위해 애써주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선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800만 해외동포들은 거액의 자금을 쾌척하며, 세계 곳곳에서 국가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제주도 지지와 홍보를 했다.

그 결과 제주도는 가장 먼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확정되었다. 이제 우리

에겐 세계7대 자연경관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후 해외 언론 보도 내용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지인 브라질 라틴아메리카 프레스(2011.11.22.)는 "뉴세븐원더스 재단 프로젝트와 연계해 브라질의 산업 성장을 위해 110억 달러를 투입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페루의 Peru this week(2011.11.22.)은 "페루는 2만 여명 방문객을 목표로 10월 말부터 관광지 입장료를 50% 인하하는 노르테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 다른 7대경관 선정지인 테이블 마운틴에서도 7대경관 선정 효과 및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알란윈드 재정관광부 장관은 "공식 관광 마케팅협회인 CTRU는 여름맞이 캠페인 계획을 위해 수백 개의 지역 레스토랑, 호텔, 관광지 및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광범위한 할인권과 특별제공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2011.12.12. OPODO).

테이블마운틴 공원의 매니저 패디고돈은 "테이블마운틴이 세계7대자연경관의 하나로 선정되며 관광객의 갑작스런 유입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고, 새로운 지위는 1만 1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매년 14억 랜드(약 1천9백억원)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2011.11.22 남아프리카방송사).

베트남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도 7대경관 선정에 따른 정책을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는 하롱베이의 7대 경관 선정을 반영하고, 투자 증가 및 서비스와 운영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훈령 3620에 따라 하롱베이 입장료를 1인당 4만동(2달러)에서 13만동(6.5달러)으로 세 배 가량 인상했고(2011.12.3. Tuoitre news), 하롱베이를 운항하는 모든 배를 흰색으로 도색하여 이미지를 통일 시켰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과수 폭포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으로 놀라운 관광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3년간 4천만 페소(1,000억원)을 투입해서 주변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고(2012.1.3. Mensajeroweb), 세계적인 축구스타인 메시는 관광부장관을 만나 공식적으로 7대 경관 아르헨티나의 관광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7대경관 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라몬 히메네스 주니어 필리핀 관광부 장관은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의 7대경관 선정으로 푸에르토 프린세사는 국가적 관광 산업 개발 계획의 주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4년 안에 푸에르토 프린세사시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011.12.2. 필리핀 일간지 필스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7대 경관 선정지인 코모도 섬을 포함한 동부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을 위해 210조 루피아(233억 달러, 27조원)을 할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동부 인도네시아의 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관광산업 분야를 선발했으며,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다(2011.11.21. 자카르타글로브).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지 못한 후보지들 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부티나섬의 세계7대 자연경관 최종후보지 진입을 축하하기 위해 1디람(310원)짜리 기념우표를 발행했고, 부티나섬은 세계7대자연경관 선

〈그림〉 한라산 백록담

정 경쟁에서 아랍 지역의 유일한 최종후보지로 아랍 지역의 자부심이라고 밝혔다(2011.12.9. 걸프투데이).

파니 이스라엘 관광부 해외개발팀장 또한 "사해의 7대경관 도전과정에서 전 세계 수억명의 사람들이 사해와 이스라엘을 알게 되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2011.11.12. AFP 뉴스).

세계7대 자연경관 향후 추진 방안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자 문광부에서는 세계7대 자연경관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후속전략을 발표했다. 문광부에서는 제주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해외관광객 1천만 조기달성 등 한국관광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3개분야 (△ 고품격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해외 홍보, △ 올레길과 같이 세계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 수용 태세 개선 등 관광 인프라 개선) 주요대책을 수립 제주도 고품격 관광지 육성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다.

또한 해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해외조직을 활용해 대한민국과 제주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브랜드를 확산해 나감은 물론, 여수엑스포, 전남F1대회,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메가이벤트와 대형국제회의와 연계해 제주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주요 인프라 확충 개선 근본대책을 강구하고자 제주도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상에 신공항 건설,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 조사시기를 2014년도에서 2012년도로 앞당겨 줄 것과 인천공항 국제선 환승시스템 도입 요청,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 등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7대자연경관 확정 효과 가시화 추진을 위하여,①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제주 경제 재도약 계기로 활용하고, 제주글로벌 브랜드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연차적 단계적으로 추진, ②도내외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를 중심으로 세계7대자연경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7대자연경관 활용방안과 정책을 자문 협의하고 또한 관련 부처 등과 MOU를 체결, ③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 위하여 도민 대토론회 개최 등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 ④세계 7대 경관선정 증서를 대형 동판으로 제작하여 제주의 대표 명소에 설치를 함으로써 관광객 기념 촬영 등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 ⑤세계7대 자연경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교류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7대 불가사의 지역과 7대 자연경관지역간의 MOU 등 교류를 통하여 국제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⑥7대자연경관 브랜드 표기, 상표등록 등 추진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⑦이외에도 각 부서, 유관기관에서는 후속조치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7대자연경관 추진기록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먼 훗날 후손들에게도 남기기 위해 ①지금까지 추진해온 상황 등을 기록한 추진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②가칭) 세계자연유산센터내에 7대 경관지역, 신 7대불가사의, 제주도 도전, 선정 등 생생한 제반자료를 관리하는 홍보·자료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 끝에 당당히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은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세계시민 한 분 한분의 절실한 마음이 하나로 뭉쳐 이루어 낸 것이다. 이러한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을 잘 활용해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JDI